

기술의 LG 3題

日 최고 권위 디자인상 ‘10관왕’

‘굿디자인 어워드 2018’ 대거 수상

시네빔 레이저·와이드 모니터
수상제품 중 ‘베스트 100’ 뽑혔다

LG전자가 일본 디자인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인 ‘굿디자인 어워드 2018’에서 10개의 본상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특히 LG 시네빔 레이저 4K와 LG 울트라와이드 모니터는 굿디자인 어워드 수상 제품 중 상위 100개에 해당하는 ‘베스트 100’에 뽑혔다.

LG 시네빔 레이저 4K는 4K(3840×2160) 해상도, 최대 밝기 2500안시루멘으로 밝고 또렷한 화면을 보여준다. 앞서 이 제품은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 2018에서 ‘최고 혁신상’을,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레드닷어워드에서 제품 디자인 부문 ‘최고상’을 받았다.

LG 울트라와이드 모니터는 LG전자

GOOD DESIGN AWARD 2018



LG전자가 일본 디자인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인 ‘굿디자인 어워드 2018’에서 10개의 본상을 받았다.

/LG전자

가 모니터업계에서 최초로 선보인 21:9화면비 5K급(5120×2160) 모니터다. 화소수가 1100만 개가 넘어 830만 개 수준인 4K 모니터보다도 30% 이상 세밀한 표현이 가능하다. 최고 권위의 사진영상전문가협회인 ‘TIPA’로부터 ‘최고 모니터’로 선정된 바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굿디자인 어워드는 산업 제품, 건축물, 시스템, 서비스 등에 대해 디자인, 사용성, 혁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디자인상으로 ‘iF 디자인 어워드’, ‘레드닷 어워드’, ‘IDEA’와 함께 글로벌 디자인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먼지·미생물 등 에어솔루션 사업 가속도

‘공기과학연구소’ 신설·개소식

공기청정 핵심기술 연구 개발

LG전자가 차세대 공기청정 핵심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며 에어솔루션사업에 가속도를 냈다.

LG전자는 2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가산R&D캠퍼스에 ‘공기과학연구소’를 신설하고 개소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H&A사업본부장 송대현 사장, 에어솔루션사업부장 이감규 부사장 등 LG전자 임직원을 비롯해 학계와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기과학연구소는 집진, 탈취, 제균 등 공기청정 관련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전담하게 되며 유명 교수진으로 구성된 기술자문단과도 협업한다.

연구소에는 고객들이 실제 생활하는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먼지, 유해가



LG전자가 2일 서울 금천구 가산R&D캠퍼스에 차세대 공기청정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공기과학연구소’를 신설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LG전자 H&A사업본부장 송대현 사장(왼쪽 네 번째)이 참석했다.

/LG전자

스, 미생물 등을 측정하고 제거하는 실현장비들이 들어섰다. 연구원들은 거실, 주방, 침실, 옥방 등 집안의 다양한 공간에서 공기질의 변화를 측정하고 효과적인 청정방법을 연구한다.

이곳에서 개발되는 핵심기술들은 퓨리케어 공기청정기뿐 아니라 휴센 에어컨, 휴센 제습기 등 LG전자 에어솔루션사업 제품 전반에 적용된다. LG전

자는 깨끗한 실내공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연구 성과가 본격적으로 제품에 적용되기 시작하면 에어솔루션사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LG전자는 지난 2월 경남 창원에 정수기의 위생과 수질을 전담해 연구하는 ‘물과학연구소’를 개설한 바 있다.

/구서윤 기자

사진 속 일부영역만 동영상 재생해요

LG V40 씽큐 ‘매직 포토’

카메라 핵심 기능 속속 공개

LG전자가 4일 ‘LG V40 씽큐(Thin Q)’의 발표를 앞두고 카메라 기능을 속속 공개하고 있다. LG전자는 2일 V40 씽큐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매직포토로 촬영한 사진을 SNS에 두 번째로 공개했다.

LG전자가 이번에 공개한 사진은 한 공간에서 일부만 움직이고 있어, 숨은 그림처럼 어떤 부분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찾는 재미가 있다.

매직포토는 정지된 사진의 일부 영역만 지정해 동영상처럼 움직이게 만들 수 있다.



LG전자가 공개한 매직포토 기능에 따르면 사진 속 사람들은 멈춰있는 가운데 선풍기와 창밖의 나무가 움직이고 있다.

/LG전자

찍고 싶은 대상을 3초간 촬영한 후, 움직이게 하고 싶은 부분을 손가락으로 문지르기만 하면 된다. 후면 카메라 뿐 아니라 전면 카메라를 활용해 셀카로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파티에서 다 같이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후 내 모습만 손가락으로 문지르면, 주변이 모두 정지한 가운데 나만 춤을 추고 있는 듯한 연출이 가능하다.

/구서윤 기자

Hyundai Oilbank

멕시코에 휘발유 수출 장기계약

국내 정유사 중 최초 직접 계약

내년 상반기 210만 배럴 공급



문종박 현대오일뱅크 사장.

에 공을 들였다.

현대오일뱅크는 이번 계약에 이어 내년 하반기부터는 다년 계약 또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오일뱅크는 싱가포르, 필리핀 등 전통적인 휘발유 수출 시장인 아시아를 넘어 지속적으로 수출 영토를 넓히고 있다. 2013년 거래를 시작한 뉴질랜드의 경우 연간 500만 배럴 이상을 현대오일뱅크에서 수입하고 있다. 뉴질랜드 전체 휘발유의 25%, 수입 휘발유의 54%가 현대오일뱅크 제품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도 올해 말까지 휘발유를 최대 120만 배럴 공급할 수 있는 계약을 지난해 체결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LG유플러스 ‘핵심 서비스’를 한눈에

체험형 팝업스토어 ‘U+라운지’

삼성동 코엑스몰서 28일까지 운영

다. 실제 서비스가 활용되는 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U+사장님 패키지, 지능형CCTV, U+마트드론 등 일반 고객에게는 생소한 기업 간 거래(B2B) 서비스도 선보인다.

LG유플러스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인터넷TV(IPTV) 등 자사 핵심 서비스를 종합라한 체험형 팝업스토어 ‘U+라운지’를 서울 삼성동 스타필드 코엑스몰에 오픈해 28일까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3

팝업스토어는 100평 규모다. 20여명의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상주해 자사 주요 서비스를 직접 시연하고 설명한다.

팝업스토어 내에는 AI 리빙룸, AI 키즈룸, 홈시네마 부스 등이 별도 마련된다.

/김나인 기자 silkn@



팝업스토어 매장에서 방문객들이 LG유플러스의 다양한 서비스를 체험해보고 있다.

/LG유플러스

‘취항 2주년’ 에어서울, 특가 이벤트 실시

동경·다낭 등 국제선 15개 노선

오늘 오전 10시~11일까지 판매

에어서울은 오는 7일 취항 2주년을 맞아 국제선 전 노선을 대상으로 하는 특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2주년 기념 특가는 동경, 오사카, 후쿠오카, 오키나와, 다낭, 홍콩, 괌 등에 에어서울이 운항하는 국제선 15개 노선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판매 기간은 오는 4일 오전 10시부터 11일까지며, 탑승 기간은 5일부터 12월 19일까지다.

편도총액(유류 할증료 등 포함) 기준 가



장 낮은 항공운임은 ▲동경(나리타) 6만 4800원 ▲오사카 5만 6400원 ▲오키나와 6만 4800원 ▲후쿠오카·디카마쓰·시즈오카·요나고·히로시마·구마모토·도야마 6만 1400원 ▲나가사키 5만 1400원 ▲홍콩 10만 3100원 ▲괌 10만 3700원 ▲다낭 12만 1500원 ▲코타키나발루 12만 3700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